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9월 7일 ~ 9월 13일)

월	김성현 루치오, 이정민 베네딕토, 이상은 마리아나, 장유정 세실리아, 김채영 크리스티나, 신재복 요한, 원소정 유스티나, 권상호, 강욱태 미카엘, 박선우 스테파노, 남은주 마리아나, 조영주 아녜스, 김명석 루카, 김순희 루실라, 조한숨
화	조기웅 프란치스코, 이슬라 미카엘라, 조예솜, 박우진 안젤라, 김라미 안젤라, 이완옥 데레사, 김미자 모니카, 이은주 마리아, 김설희 릴리안, 유혜정 릴리안, 조민경 율리아, 김형봉 베네딕토, 이정숙 켄마, 오명환 루치아노, 서옥매 마리아
수	김택수 예로니모, 성미영 데레사, 김남경 마리아고레티, 한수경 미카엘라, 강경식 요한, 류우성 베드로, 김명자 마르가리타, 전형배 체사리오, 최효섭 마르코, 강대성 돈보스코, 서찬교 발렌티노, 한의석 마리노, 장금자 율리아나, 송명호 필립보, 유수근 시몬
목	전기수 토마스아퀴나스, 박인숙 레오나, 노하나 아녜스, 박서남 로무알도, 황국자 안젤라, 박윤목 다니엘, 차효선 아나스타시아, 김영순 아폴리나, 박인준 스테파노, 구승규, 이월자, 이은섭 베드로, 천옥배 안나, 박지원 베로니카, 장병호 토마스
금	김귀열 수산나, 이해용 바오로, 신형직 대건안드레아, 문동여 마리아, 윤현민 스테파노, 이기홍 베네딕토, 박장수 스테파노, 강순연 마가렛, 김영관 도미니코, 최정자 글라라, 김은진 마리아, 박영섭 베다, 이명자 마리아, 추정옥 율리아나, 김금춘 효주아녜스
토	김영자 헬레나, 안정복 마리아, 유복순 수산나, 유춘자 안젤라, 허재무 다미아노, 장양순 크리스티나, 홍효원 파비올라, 최복희 소화데레사, 김정자 로사리아, 최신부 베로니카, 최추현 모니카, 조선희 엘리사벳, 조은미, 조태관 베드로, 김인옥 로즈마리
주일	손정혜 안젤라, 김명혜 마리아막달레나, 심영숙 아눈시아다, 박선희 율리아나, 이명자 엘리사벳, 이경자 아녜스, 함은옥 마리아, 김범수 미카엘, 문선옥 마르가리타, 김송철 마테오, 유연희 리디아, 정유미 마리아, 목혜균 이사벨라, 최선옥 마리아, 김성림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1명 중 주일미사 200명 참례 / 참례율 : 28.13%

평일미사	토 (8/29)	월 (8/31)	화 (9/1) 내촌 / 본당	수 (9/2)	목 (9/3)	금 (9/4) 본당 / 두촌
	15명	15명	14명 / 22명	15명	34명	14명
주일미사 (8/30)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19명	31명	28명	34명	73명	15명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에제 47,9,12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살아 있는 물

3. 에제키엘서 47장 1-12절의 신학적 개괄

에제키엘은 40장부터 46장까지 광야에 세워질 새 성전을 묘사해 왔습니다. 이 새 성전은 정말 웅장하지만 텅 비어 생명이 없습니다. 4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예언자는 환시 중에 미래의 완벽한 성전 입구로 인도됩니다. 성전의 문지방 아래서 물이 솟아나는데,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깊어져 곧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됩니다. 이 강은 한때 메말랐던 땅을 가로지르며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고, 물고기와 온갖 나무를 되살리며, 심지어 소금으로 가득한 사해의 물까지 치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에제키엘서 47장은 주로 미래의 종말론적 약속, 곧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온전히 함께 머무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묘사로 읽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환시는 지금 현재의 치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더 넓은 미래의 우주적 치유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은 인간 구원을 넘어서 창조세계 그 자체의 치유를 포함하는 회복을 나타냅니다. “치유를 위한” 잎을 가진 나무들은 육적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인간과 창조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전체적 번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제키엘서 47장 1-12절은 환경적 메시지, 곧 지구적 치유, 회복, 생명의 변화를 뚜렷하게 전합니다. 이 본문은 인간과 자연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데서 드러나는 희망의 지평을 제시합니다.

3.1. 살아 있는 물: 생명으로서의 물

에제키엘의 환시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을 생명을 주는 힘, 곧 하느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회복, 정의, 희망에 대한 거룩한 도구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에제키엘 시대에 물은 하느님의 현존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위대한 문명들은 나일강처럼 거대한 강들에 의존했고, 에덴동산을 적시던 강들(창세 2,10 참조) 중에서 두 개의 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에도 기대고 있었습니다. 대양의 바닷물 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환시는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시작됩니다. 이 물줄기는 기도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방울이 합쳐진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막을 수 없는 강으로 커지는 모습, 이것이 첫 번째 경이로움입니다. 그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와, 하느님 백성의 경배와 기도로 불어나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이로움은 그보다 훨씬 큼니다. 이 강은 단지 생명을 떠받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되살립니다. 예언자는 “강 이쪽 언덕에도 저쪽 언덕에도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 이 물이 동쪽 지방으로 흘러 내려가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 곧 고인 물의 바다에 이르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에제 47,7-8 참조)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어떻게 ‘고인 물의 바다’까지 흘러들어가는지 묘사할 때, 예언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생명이 없는 장소 중 하나인 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 소금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3.2. 성전의 희생 제사에서 하느님의 생명수로

에제키엘의 환시는 성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의적 전통에서 성소는 희생 제사를 바치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하느님과 화해를 위해 생명을 품고 있는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심판과 자비를 함께 보여 주며, 백성에게 생명이 값지면서도 연약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제키엘서 47장에서 주된 이미지는 더 이상 제단을 향해 흐르는 피가 아닙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거룩함은 무엇보다 생명을 낳는 풍성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생명을 피워냅니다.

피에서 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신학적으로도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가 깨어진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라면, 물은 회복과 번영의 방식입니다. 에제키엘은 희생 제사 신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하느님과 화해는 단지 예배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워진 땅, 치유된 생태계,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윤리적 의미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생명을 주는 물로 드러난다면, 참된 예배는 결코 전례 의식을 준수하는 데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충실함은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헤아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회복된 관계의 직접적 결과는 창조세계의 돌봄으로 드러납니다. 회복과 치유에 대한 희망은 기도와 예배와 희생 제사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조그만 희망의 물방울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회개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2주일

주일 헌금	1,053,000	주일헌금(송정)	276,000	교무금	1,740,000
양성, 복지, 원로	140,000	미래 기금	80,000	감사헌금	500,000

교무금 전지선, 박희명, 조성근, 김승례, 김종광, 최은희, 나철순, 윤영진, 박광열, 이원일, 신성철, 김성현, 김윤자, 허연구, 이명희, 박순우, 신정호, 권선화, 강인식, 박갑성, 이양자, 최정규, 유옥순, 장명숙, 장혜분, 최재길, 이정자, 김남수, 류재선

감사헌금 우미화(소화데레사) 5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9월 4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185,000	10,217,000
		약정 기부	2,750,000	149,340,000
		2차 헌금		9,137,950
		기타 수입		17,505,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9,420,000	148,407,326
		매일미사	12,850,000	66,745,000
		평화방송	7,380,000	33,696,000
		가톨릭 평화 신문	3,290,000	12,562,000
		가톨릭 신문	9,130,000	40,628,000
		기타 후원	1,020,000	21,539,000
합 계		46,052,000	509,777,739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11,000,000	45,751,200
		모금 준비비		4,068,140
		봉사자 지원비		1,440,850
	합 계		11,000,000	94,861,760
현 잔액			1,081,763,895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3세대 187,300,000원 중 149,340,000원 납부 (납부율 79.73%)

김복연, 안남선, 박순우, 박갑성, 손아름, 류재선, 소옥선, 권오순, 김후태, 이성종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1,130,000원 류석환, 이종규, 조복수, 박찬애, 김원옥, 윤향만, 서순자, 장경수, 이영아, 양춘숙, 이순희, 이정환, 이명화, 안영미, 이정숙, 이석범, 김은숙

죽림동성당 670,000원 목혜균, 정은지, 최선옥, 최복순, 이효숙, 최영숙
교동성당 7,620,000원 황상숙, 강종임, 김태호, 정재택, 손미자, 김주문, 김충식, 진규병, 김창환, 김종섭, 송경화, 양명순, 손세은, 원희섭, 김재현, 박종각, 원현철, 홍귀봉, 김태형, 이해숙, 김미령, 김현정, 김정순, 김명섭, 강지희, 강명숙, 김규리, 김복환, 최옥경, 김귀자, 김수림, 배경준, 임정미, 유수빈, 김세훈, 장현영, 이완옥, 김상숙, 김광희, 황연진, 박현택, 김영숙

매일미사 조을연, 이숙경, 신명철, 김윤옥, 이윤정, 홍두표, 박미옥, 이성인, 김두남, 이재형, 최현자, 이정수, 임남이, 형수연, 형채은, 형서경, 이윤자, 박경순, 이해운, 최진완, 정혜숙, 나상구, 장동린, 노우현, 유명상, 이영선, 김옥동, 강명남, 박지민, 이원재, 박준성, 박해동, 차을순, 이치영, 최미경, 오순석, 이윤열, 임남미, 윤지영, 김현태, 이수아

평화방송 박용완, 김용길, 문혜선, 우매자, 송카타리나, 전영자, 고광규, 임영희, 김덕복, 강경규, 채순실, 강용천, 조나라, 원향희, 이복선, 김순자, 전기열, 백순자, 최수영, 현영식, 최경화, 윤정준, 최성길, 신미숙, 정순규, 김희철, 홍석표, 황정연

가톨릭신문 원유창, 조봉희, 이선기, 국현성, 황인선, 박창희, 장은희, 양지연, 김재만, 배 젤뜨루다, 김순길, 김희수, 김정옥, 서보나, 임연옥, 차미경, 이영복, 정애자, 박용철, 유신혜, 노영임, 김용환, 최순옥, 이윤선, 박영희, 유경림, 신은희, 서영애, 장상숙, 남순덕, 유정희, 이혜진, 김철재, 허정미, 엄수환, 김영숙, 서정주, 조명자, 석영애

가톨릭 평화 신문 엄미숙, 이구남, 이성희, 이숙희, 이인희, 한정섭, 황지은, 변춘지, 윤정숙, 지영옥, 최영희, 이준경, 고유림, 민용자, 임지윤

기타 후원 이철학, 백순옥, 엄인영

지출

광고비 평화방송, 가톨릭평화신문 8월 광고료

레지오 훈화 1-1. 성모 공경의 역사 (2)

우리나라 최초의 목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1845년 7월 23일, 리부아(Libois) 신부에게 보낸 열여섯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성모 신심을 알아볼 수 있다.

교우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해 절망하여 슬퍼져서 울며 “이제 그만이다.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하고들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분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을 잃고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대를 걸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보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년 때도 앞, 생사의 갈림길에서 김대건 성인이 의지한 분은 성모님이었다.

1846년 11월 2일 공주 수리치골에서 ‘성모 성심회’가 설립되었다. 1887년에 간행된 「조선 교회 지도서」에 따르면, ‘성모 성심회’, ‘매괴회’, ‘성의회’를 교회 안의 공식 신심회로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98년에는 중현 성당(명동 성당)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1953년 3월에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인 ‘푸른 군대’가, 같은 해 5월에는 ‘레지오 마리아’가 한국에 들어왔다. 진출 50주년을 지낸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본당 중심의 전교 활동과 봉사 활동은 교세 확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54년에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 선포 100주년으로서 한국 교회가 다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다. 오늘날 한국에 진출한 교황청 설립 남녀 수도회, 또는 한국 교회의 교구 설립 남녀 수도회 가운데에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수도회명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 또한 우리나라 성모 공경과 무관하지 않다.